

1920~30년대 캘리포니아 한인 사회 연구 - 변화와 특성 -

김 지 원*

I. 서론	V. 결론
II. 한인 핵가족 형성	<참고문헌>
III. 인종차별과 세대관계의 변화	<국문요약>
IV. 양성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	

I. 서론

한인들의 이민이 시작된 20세기 초부터 미주 내 한인들의 법적 지위는 한국은 물론 미국 내 정치·사회적 변화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한인들은 동양인의 일원으로서 ‘시민권을 획득할 수 없는 외국인(alien eligible to citizenship)’으로 간주되었으며, 1905년 을사조약 이후부터는 대한제국의 외교권이 박탈되어 일본의 신민(Japanese subject)으로 강등되었다. 미국 내 한인들의 법적 지위는 이러한 외적 요인과 함께 1905년부터 캘리포니아의 백인들을 중심으로 전개한 반동양인 여론으로 인하여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후 제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백인들의 반동양인 정서는 잠시 주춤했으나, 종전 이후 1920년대에 들어 재개되면서 결국은 법적으로 제도화되었다. 그 결과 당시 반일운동이 극심했던 캘리포니아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의 지위도 일본계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반일본 관련법으로 인해 상

당한 영향을 받았는데, 시기에 따라 그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1920년대에 제정된 일련의 반일본 관련법이 한인사회에 미친 영향은 다른 시기와는 커다란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1920년과 1923년에 제정된 외국인토지법(Alien Land Act)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던 한인들의 경제적 위상에 커다란 타격을 입혔다. 더구나 1910년 이후 사진신부들이 도래하여 한인사회의 주종을 이루던 독신 한인남성과 결합하면서 1910년대 후반부터는 한인사회의 핵을 구성하는 가족이 서서히 형성되었고, 1924년 이민법(Immigration Act of 1924) 제정 이후 캘리포니아 한인사회는 한인들로 구성된 독자적인 이민자 집단이 형성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처럼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정된 일련의 반일본 관련법은 핵가족을 중심으로 한 한인사회의 맥아가 나타나고 나름대로의 특성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초래하였다.

1920~1930년대 캘리포니아인의 반일운동 및 한인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그동안 학계의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1924년 이전 미주 한인들의 민족 정체성과 독립운동에 대해서는 하와이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연구²⁾가 발표되었으나, 캘리포니아 지역의 초기 한인의 생활과 적응양상에 관한 깊이 있는 분석은 시도되지 못하였다. 한인들과 관련해 발표된 연구들도 대부분 1920~30년대 캘리포니아 한인의 독립운동과 관련된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이민법 제정에 관련된 연구는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지만,³⁾ 대부분 이민정책의 변동과 그 결과에 관련된

1) 1907년 샌프란시스코 학교분규의 결과 나타난 <대통령령 589(Executive Order 589)>는 일본인 이민을 배척하려는 캘리포니아인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하와이에서 미본토로 들어오려는 한인들의 이민도 중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1910년대에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들의 토지 소유를 봉쇄하기 위한 조치로서 캘리포니아 주법원이 주도해 제정한 1913년의 외국인토지법(Alien Land Act of 1913)은 한인들에게도 동일한 의도로 적용되었다. 이러한 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인과 한인들은 모두 이 법의 허점을 이용해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농지를 대규모로 소유할 수 있었고, 1912년 무렵부터 활성화된 캘리포니아의 쌀농업에 편승해 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2) Moon, Hyung June, "The Korean Immigrants in America: the Quest for Identity in the Formative Years. 1903~1918," Ph.D. diss., University of Nevada, Reno(1976); Patterson, Wayne, *The Korean Frontier in America: Immigration to Hawaii, 1896~1910*(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8); Son, Young Ho, "From Plantation Laborers to Ardent Nationalists: Koreans' Experiences in America and Their Search for Ethnic Identity, 1903~24," Ph.D. diss., Louisiana University(1989).

* 명지대학교 강사, 미국사 전공(jiwon161@daum.net).

내용이 대부분이며 초기 한인 이민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

본 논문은 반일운동이 극렬하게 전개되었던 192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한인사회가 반일본 관련법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았으며, 나아가 이러한 법적 변화에 적응해 한인사회에 나타난 특성이 무엇인지 가족을 중심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1924년의 이민법 제정과 캘리포니아의 쌀농업 붕괴가 1920년대 캘리포니아의 한인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특히 한인공동체가 이러한 정치·경제적인 변화를 통해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으로 단합되어 적응하면서 전통적인 한국적 가치관을 어떻게 유지하고 변형했는지 세대관계와 양성평등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할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한인이 1920년대에 미국 주류사회의 제한된 법적 환경에 대응하여 나름대로 가족적 특성을 형성하는 과정을 분석하는 것은 초기 한인이민사의 연구뿐만 아니라 미국이민사에서 초기 한인이민을 자리매김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의미있는 작업일 것이다.

II. 한인 핵가족 형성

1. 1924년 이민법의 배척조항과 사진신부의 중단

20세기 전반기 캘리포니아는 미국인들의 반일운동의 산실이었으며, 특히 1920년대에는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반일본 관련법이 제정된 중요한 시기였다. 전후 재개된 캘리포니아인의 반일운동은 1924년 이민법에 새로운 배척조항(Exclusion Clause)을 제정하도록 강력한 압력을 가했고, 여러 단계를 거쳐 연방차원에서 반일본 관련법 제정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

1904년 러·일전쟁 이후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일본인 이민이 급증하자 반일감정도 고조되었다. 1905년 5월 샌프란시스코에 아시아인 배척연맹(Asiatic Exclusion League)이 결성되어 대중적으로 일본인 배척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제1차 세계대전 시작과 함께 캘리포니아인의 반일감정은 일시적으로 주춤했으나, 1918년 중

3) 손영호, 「미국이민정책에 관한 연구, 1882~1924」, 『미국사연구』, 제4집(1996), 165~202쪽, 최형, 「미국의 이민정책과 아시아계 미국인」, 『현대사회과학연구』, 제8권(1997), 1~30쪽.

전과 함께 캘리포니아 전역에 걸쳐 반일운동이 재개되었다.

전후 캘리포니아인의 반일운동의 주된 원인은 신사협정(Gentlemen's Agreement)이 원래의 목적에 부응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진행된 데에 있었다. 일본인을 배척하려는 의도와는 달리 도리어 일본인 이민자의 수가 증가하고, 사진신부가 도래했으며, 여기에 일본인의 현저한 경제적 상승이 복합적으로 결부되어 재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신사협정 후 일본인 노동자는 실제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었다.⁴⁾ 미국 이민국장의 『연례 보고서』(Annual Report)에 따르면 해마다 수천 명의 일본인 노동자가 입국했고, 그들의 직업은 노동자, 농장노동자, 이발사, 목수, 요리사, 하인, 재봉사, 원예사 등의 다른 직종들로 세분되었다. 캘리포니아인은 노동자인 일본인 이민자들이 다른 직업으로 범주를 변형하여 일본에서 여권을 획득한 후, 미국에 입국하는 것은 신사협정의 목적에 위배된다고 판단하고 일본인 노동자들의 입국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

일본인 노동자의 미국 이주와 더불어 제기된 다른 문제는 바로 일본인 사진신부가 대량으로 입국한 것이었다. 신사협정에는 기존에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일본인 노동자와 이들의 부모, 자녀, 배우자에게는 여권을 발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이민국 관리는 일본인 사진신부가 입국하는 것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⁵⁾ 중국인 기혼남성은 본국에서 부인을 미국으로 데려오지 못한 반면, 일본인 미혼남성은 사진결혼을 통해 일본인 신부를 미국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사실이 캘리포니아인을 더욱 자극하였다. 더구나 신사협정의 의도는 일본인 기혼남성이 본국에 있는 배우자를 데려와 결합하는 것이었는데 일본인 미혼남성까지 일본인 여성과 사진결혼하여 미본토에서 가정을 형성한 것은 협정을 위반한 것이라 여겼다.⁶⁾

전후 캘리포니아인의 반일운동은 앞서 언급한 신사협정의 부정적인 결과에 일

4) Ichihashi, Yamato, *Japanese in the United States: A Critical Study of the Problems of the Japanese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Stanford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32), pp. 58-64 참조.

5) State Board of Control of California, *California and the Oriental: Japanese, Chinese, and Hindus*(Sacramento: California State Printing Office, 1920), p. 163.

6) "Picture Brides and Their Successors," Edson, Katherine Philips Papers, Special Collec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본인의 경제적 상승이 부가되어 더욱 고조되었다. 1909년 캘리포니아의 일본인의 경지면적은 총 83,252에이커였다. 그러나 1919년 캘리포니아 일본인 농업협회(Japanese Agricultural Association of California)의 통계에 의하면 총 427,029에이커로서, 10년간 512.9%나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1909년 일본인의 농작물 수입액은 총 \$6,235,856였는데, 1919년에는 \$67,145,730으로서 976.8%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⁷⁾ 비록 일본인들의 농지 소유면적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효율적인 생산방식을 통해 농가소득을 극대화하고 있었다. 1919년 일본인의 농지면적은 총 458,156에이커로서 캘리포니아의 총 농지면적의 1%에 불과했지만, 일본인이 농작물을 경작하여 획득한 총 수입은 \$67,000,000 이상, 또는 그 해 캘리포니아의 농업생산 수입의 약 10%를 차지했던 것이다.⁸⁾

결국 캘리포니아인의 반일운동은 초당파적인 성격으로 통합되었고, 이는 1921년 캘리포니아의 사키 결의문⁹⁾에서 일본인을 전체적으로 배척한다는 내용에 구체적으로 표명되었다. 1922년에는 오자와 타카오(Ozawa Takao) 판례¹⁰⁾를 통하여

7) State Board of Control of California, *ibid.*, p. 51.

8) Roger Daniels, *Asian America: Chinese and Japanese in the United States Since 1850*(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8), pp. 143-144.

9) 이 결의문은 그것을 도입한 입법자 상원의원 윌 사키(Will R. Sharkey)의 이름을 따서 ‘사키결의문’으로 명명되었으며, 캘리포니아의 일본인을 전체적으로 배척할 것을 요구하였다. “Japanese Immigration and Colonization,” Edson, Katherine Philips Papers.

10) *Ozawa v. United States*, 260 U.S. 189. 일본인 오자와가 1914년 10월 14일 호놀룰루의 연방지 역법원(Honolulu's Federal District Court)에 시민권을 신청하면서 시작되었다. 오자와는 일본에서 출생했지만 1894년 미국에 학생으로 온 후 대부분의 삶을 미국에서 보냈다. 그는 버클리 고등학교(Berkeley High School)와 캘리포니아 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을 졸업한 후 호놀룰루로 이주하여 미국인 회사에 다녔으며 일본정부, 일본인 교회, 일본학교, 일본의 조직 등과 연계되지 않았다. 그의 가족은 미국인 교회에 속했고, 자녀들은 미국학교에 다녔다. 집에서 영어를 사용했고, 자녀들은 일본어를 하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시민권 신청이 거부되자 오자와는 1916년 하와이 지역의 미연방 지역법원(U.S. District Court)에 재신청하였다. 그러나 지역법원은 청원자가 모든 면에서 미국시민이 되기에 적합하지만 백인이 아니어서 시민권에 부적격하다고 판결하였다. 6년 후 이 사건은 연방 대법원에서 재심되었다. 1922년 연방대법원은 오자와가 명백히 코카시안(Caucasian)이 아니므로 귀화된 시민권(naturalized citizenship)의 자격을 부여받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결하였다. Takaki, Ronald(ed.), *Strangers From a Different Shore: A History of Asian Americans*(New York: Penguin Books, 1989), pp. 208-209; Daniels, Roger, *ibid.*(1988), p. 151; Daniels, Roger and Harry H. L. Kitano, *American Racism-Exploration of the Nature of Prejudice*(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1970), pp. 53-54.

일본인이 시민권을 획득할 수 없는 외국인이라는 법적인 자격이 결정되고, 이는 일본인을 배척하기 위한 법적인 요건이 되었다.

1924년 5월 15일, 상원 69 대 9, 하원 308 대 62의 압도적인 찬성에 의해 1924년 이민법(Immigration Act of 1924)이 통과되었다. 1924년의 이민법은 반일본 관련법의 일환으로서 동양인 이민을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미국에서 거주하는 일본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세기 말 일본인 이민자들의 미국 이주가 시작된 이후 미국의 일본인의 배척운동의 목표가 1924년 이민법으로 비로소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이다.

1924년 이민법의 쿼터는 1921년 이민법에서 적용한 것과는 달랐다. 1919년 이후 연방정부는 남동부 유럽지역으로부터의 이민에 대해 염려하였다. 그 원인은 적색공포, 실업으로 야기된 미국의 경제적 불경기, 재향군인의 대규모실업, 그리고 유럽의 돌연한 장티푸스 전염병 때문이었다. 따라서 1921년 5월 25일, 연방의회는 20세기 첫 미국의 이민쿼터법(Immigration Quota Act)을 통과했는데, 이는 딜링엄 법(Dillingham Act)으로 알려진 것으로서 외국인 이민을 제한하는 법이었다. 이 법은 1910년 미국의 인구조사를 토대로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출생자를 출생국별로 구분하여 출생국별 인구의 3%에 해당하는 수의 이민을 할당하였다. 1921년 이민법은 아시아보다는 유럽인 이민이 범람할 것을 우려하여 동부와 남부 유럽의 이민자를 조절하기 위한 방어수단으로 통과된 것이었다. 이 법은 이전의 조약이나 동의안에 의해 이민이 규정된 국가의 이민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으므로 일본인 이민에게는 1921년 이민법의 쿼터가 적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1924년 이민법은 2% 쿼터의 기준으로 1890년 인구조사를 기준으로 하였고, 시민권을 획득할 수 없는 외국인의 이민을 제한함으로써 서유럽의 이민에 유리하였다.

1924년 이민법이 제정되어 한인사회에 영향을 준 것은 무엇보다도 1924년 이민법에 포함된 배척조항으로 인하여 그동안 한인들이 미본토로 이주하는 중요한 경로 중의 하나인 사신신부의 유입이 중단되었다는 점이다. 1905년 본국에서 미국으로의 직접이민이 이미 중단되었고, 1907년에는 하와이에서 미본토로의 한인노동자의 이민이 중단되어 한인들은 이민초기에 이미 배척된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¹¹⁾

11) 1905년 이후 캘리포니아 한인의 대다수는 1903년부터 1905년까지 하와이에 이민 온 초기 이민자로서 하와이 플랜테이션의 농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다 1905년부터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한인인

그러나 1924년 이민법의 배척조항으로 말미암아 1910년 이후 도래하던 사진신부가 중단되어 한인인구의 분포와 세대관계에 변화를 주었다.

일본과의 신사협정이 체결된 이후 사진신부인 한인여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1911년에 미국으로 이주한 8명의 한인들은 모두 여성이었다. 1910년 11월부터 1924년 10월까지 미대륙에는 115명의 한인 사진신부가 도래하여 한인공동체에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 대다수 하와이로 이민 온 사진신부는 한반도 남부, 특히 영남과 그 주변지역 출신이었다. 반면 1910년부터 1924년 동안 미대륙으로 온 115명의 사진신부들은 한반도 북부, 즉 거의 대부분이 평안도와 황해도 출신으로 상해를 거쳐 도착하였다.¹²⁾ 이렇게 미대륙으로 도착한 사진신부들은 현지에 독신으로 있는 한인 남성들이 한인들만으로 구성된 가정을 구성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이러한 한인가족의 등장은 캘리포니아 한인 공동체의 특성이 변화되는 새로운 요인이 되었다. 예를 들어 1910년 한인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90.7 : 9.3이었다. 1920년에 이 비율은 75.4 : 24.6으로 격감하였다.¹³⁾

여기에서 지적할 것은 신사협정 이후 사진신부가 도래하여 가정을 이룬 캘리포니아의 한인이 1924년 이후부터는 사진신부의 유입이 금지되어 1세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1920년대부터는 캘리포니아 지역 한인 인구의 분포도가 크게 변화하여¹⁴⁾ 한인 2세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미국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1910년 캘리포니아의 한인¹⁵⁾은 304명이었고, 이 중 이민자는 290명,

었다. 한인은 고수익의 임금과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하와이의 플랜테이션을 떠나 캘리포니아로 이주했다. 그들은 하와이에 도착한지 보통 1~2년 뒤 이주했다. 미국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하와이 이민 총 6,747명 중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한인은 1,015명이었다. U.S. Congress. House, Immigration Commission, *Abstracts of Reports of the Immigration Commission*, Vol. I(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11), pp. 710~711 참조.

12) Sunoo, Sonia Shinn(ed.), *Korean Picture Brides: A Collection of Oral Histories*(Davis, Calif.: Korean Oral History Project, 2002), p. 16. 대부분 사진신부는 경상도 출신이었으며, 서울과 평안도 출신이 샌프란시스코로 많이 왔다는 기록이 있다. 민병용, 『美洲移民 100年: 初期人脈을 켜다』(한국일보사 출판국, 1986), 219쪽 참조.

13)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Fifteenth Census of the United States 1930, Population 2. General Report Statistics by Subjects*(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32), p. 88.

14) *Ibid.*, pp. 98, 59, 670.

미국출생자는 14명으로서 4.6%였다. 1920년대에 이르면 총 772명의 한인 중 이민자는 537명, 미국출생자는 237명으로 30.6%로 증가하였다. 1930년에는 총 1,097명 중 이민자 585명, 미국출생자가 512명으로 2세의 비중이 46.6%로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¹⁶⁾

1924년 이민법이 제정되어 사진신부가 중단되었고, 한인 2세의 비중이 부각되어 한인사회는 핵가족을 형성하는 변화과정을 겪었다. 더욱이 1920년을 전후하여 캘리포니아의 쌀농업이 붕괴되어 한인사회의 경제적 기반이 자영업으로 전환되자 한인사회가 가족을 중심으로 협력하게 되어 가족중심의 특성을 나타내는 또 다른 계기가 되었다.

2. 캘리포니아 쌀농업 붕괴와 한인의 경제적 기반 변화

1910년대에 호황기를 이루던 캘리포니아의 쌀농업은 1920년을 전후하여 여러 가지 악재로 인하여 붕괴 위기를 맞이하였다. 캘리포니아의 한인들은 이러한 악재에 직면하여 지대한 타격을 받았고, 그 결과 한인사회는 경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¹⁷⁾

15) 1905년 이후 캘리포니아의 한인들은 대부분 1905년 이전부터 캘리포니아에 거주해 왔거나 하와이 생활의 경험이 선행되었다. 1903년 캘리포니아의 한인은 100명이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소규모였다. Yim, Sun Bin, "The Social Structure of Korean Communities in California, 1903~1920," Lucie Cheng and Edna Bonacich(eds.), *Labor Immigration Under Capitalism: Asian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Before World War II* (Berkeley, Calif.: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p. 542. 1904년 이전 샌프란시스코의 한인은 50명 미만이었다. Choy, Bong-youn, *Koreans in America*(Chicago: Nelson Hall, 1979), p. 105. 1904년 로스앤젤레스에 거주하던 한인은 약 20명이었다. 김신행, 『새하늘과 새땅을 향하여: L.A. 연합감리교회의 100년역사 1904~2004』(Los Angeles: LA 연합감리교회, 2004), 26쪽.

16)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ibid.*(1932), p. 59.

17) 한인이 캘리포니아에 온 시기는 농업산업이 확장되던 때여서 농업이 한인의 경제적인 기초가 되었고, 이주노동자로서 이민생활을 시작했다. 그 시기에 동양인이 할 수 있던 일은 농장에서 오렌지, 레몬, 호두 같은 작물을 따는 것이었다. Sunoo, Sonia Shinn(ed.), *Korea Kaleidoscope: Oral Histories*, Vol. I. *Early Korean Pioneers in USA: 1903~1905*(Davis, Calif.: Korean Oral History Project, 1982), p. 93. 1905년에서 1910년 사이, 많은 한인들은 새크라멘토 강 하부지역(Lower Sacramento River), 즉 프레즈노(Fresno) 근처의 포도농장과 리버사이드(Riverside)와 레드랜드(Redlands) 근처의 오렌지 과수원에서 이주노동자로 일했다. 리버사이드의 중심 거주지를

캘리포니아의 쌀농업은 1920년 11월 초, 이 지역에 예상치 않게 많은 비가 내리면서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11월에 추수가 시작되어 겨울 전에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1919년에 내린 0.58인치의 강우량에 비해 1920년에는 11월 중반까지 5.48인치나 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리자 쌀 재배자들은 추수를 할 수 없게 되었다. 11월에 이어 12월에도 비정상적으로 많은 비가 오자 어쩔 수 없이 추수를 연기할 수 밖에 없었다.¹⁸⁾ 결국 1921년 4월 중순까지도 추수를 재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1920년에 추수되지 않은 쌀은 농지에 남은 채로 썩게 되었다. 결국 많은 한인농민들은 심각한 손실에 직면하여 임차료를 지불하지 못하고, 재배기간 동안 빌린 융자도 갚기 어려웠다.

원래 캘리포니아의 소작농들은 1910년대 중반에서 1920년대 초기까지, 북부 새크라멘토 계곡의 커루사(Colusa), 그렌(Glenn), 버트(Butte), 유바(Yuba), 그리고 서터(Sutter) 카운티에 쌀을 재배하기 위해 농지를 임차했고, 한인은 주로 커루사와 그렌 카운티 지역에 집중하였다. 1916년 한인은 위로우(Willow), 커루사, 우드랜드(Woodland), 맨티카(Mantica) 등에서 본격적으로 쌀농사를 시작하였다. 새크라멘토 계곡과 레드랜드에서 이미 쌀 재배를 확장하여, 새크라멘토에서는 1,400에이커의 쌀농지를 운영하였다. 1918년 한인은 쌀농지와 수확을 대폭 확대하였다. 위로우에서 한인농민들이 경작한 쌀농지 면적만 4,200에이커였고, 수확량이 22만 석에 달하였다. 그 당시의 쌀의 공정가격이 4달러 25센트이였으므로 수입이 93만 5천 달러에 이르렀다. 1919년에는 수확이 30만 석에 달하여 쌀농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기대되었다.¹⁹⁾

쌀농업이 붐을 이루던 1918~1919년 동안 대다수 한인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대단위 농업을 시도해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지만 위와 같은 악재에 직면하여 많은

기점으로 레드랜드, 업랜드(Upland), 클레어몬트(Claremont) 등에 소규모의 한인 거주지가 들어섰다. 오렌지 수확기 동안에 리버사이드는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한인 거주지였다. Charr, Easurk Emsen, *The Golden Mountain: The Autobiography of a Korean Immigrant 1895-1960*(Boston: Forum, 1961; reprint, Urbana and Chicago: University of Illinois Press, 1996), p. 149 참조

18) Korean-American Oral History Project Collection(1903-45).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 Kim, Won-Yong, *Chaemi Hanin Osipnyun-sa(Fifty-Year History of Koreans in America)* (Reedley, Calif., 1959), p. 299.

농민들이 파산하거나 빚을 지게 되었다. 심지어는 1920년의 수확을 위해 조립, 재배, 추수할 비용으로 미리 빌린 임차료와 융자를 지불하기도 어려웠다. 번성기에는 쉽게 대출자금을 구할 수 있었으나 불경기에는 대출받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상기후로 어려움에 봉착한 한인농민들에게 1920년과 1923년에 반일운동의 일환으로서 제정된 외국인토지법은 더욱 불리한 악재로 작용하였다. 1913년 외국인토지법은 시민권 부적격자에게 토지를 구입하는 권리와 3년 이상 임차하는 것을 금지한 반면, 1920년 개정법은 농지 임차를 금지하였다.²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인 농민들은 1920년 외국인토지법의 임차 농지에 대한 법적인 제한을 우회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였다. 이들은 여러 가지 방안을 고안해 1920년 법을 위반하지 않고도 지주와 수확계약을 맺어 이윤·임대계약과 유사한 합의에 따라 농업을 계속하였다. 고용계약과 임차계약과는 상이한 점이 있었으므로, 농민들은 소작농 대신 고용자로서 일할 수 있었다. 결국 1920년 외국인토지법은 수확계약의 법적인 위치가 모호한 점이 있어 1923년 외국인토지법에서는 이윤·임대 동의협약과 유사한 형태의 고용 협약 체결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법인이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하고, 불법으로 획득한 소작지를 몰수하도록 하였다.²¹⁾

1920년과 1923년의 외국인토지법은 시민권을 획득할 수 없는 일본인을 겨냥한 것이었지만 한인을 비롯한 동양인에게도 적용되었다. 한인에게 있어 1920년과 1923년의 외국인토지법은 소작농이었던 한인들을 다시 노동자로 하향 이동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1920년 한인이 쌀농업에서 도산한 것은 불경기에 민감한 한인농민들의 취약성을 잘 반영하였다. 1920년 이후 막대한 손실을 만회할 충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없었던 것이다.²²⁾ 1920년 쌀가격이 폭락하여 \$156,416의 손실을 입었고 경제적인 배경이 빈약하여 쌀농업을 중단하게 되었다.²³⁾ 더구나 1923년의 외국인토지법의 강력한 제한으로 더욱 타격을 받았다. 이 법이 개정된 후에도 쌀농사를 지속하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20) *Statutes of California*(Sacramento: California State Printing Office, 1921), pp. Ixxxiii-Ixxxviii.

21) *Statutes of California*(Sacramento: California State Printing Office, 1923), pp. 1020-1025.

22) Yim, Sun Bin, "The Social Structure of Korean Communities in California, 1903-1920," Lucie Cheng and Edna Bonacich(eds.), *ibid.*, pp. 534-537.

23) Kim, Won-Yong, *ibid.*, p. 299.

캘리포니아의 한인농민들은 쌀농업의 기반이 확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악재에 직면하자 1920년 이후 그렌과 커루사 카운티의 쌀 재배지를 벗어나기 시작하였다. 1910~1920년 동안 캘리포니아 대도시의 한인인구 비중은²⁴⁾ 1930년에 이르러 급증하였다.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리스를 예로 들면, 1910년 한인 인구는 14명, 1920년 84명, 그리고 1930년 345명으로 증가하여 대륙에서 가장 큰 한인도시로 부각되었다. 한편 샌프란시스코는 하와이에서 캘리포니아로 국내 이주할 당시 도착항으로 1930년에는 143명의 한인이 거주하였다.²⁵⁾ 1930년에 도시에 거주하는 한인의 인구가 급증한 것은 도시와 지방의 한인 이동의 숫자를 비교하여 추측할 수 있다. 1930년에 학교에 출석한 5세 이상의 한인 아동은 총 546명인데, 이 중 도시거주자는 400명, 지방 거주자는 146명으로서 도시 거주율이 약 73%이다.²⁶⁾ 도시에 거주하는 인구비율이 현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도시로 이주한 한인들은 대부분 자영업으로 전환하였다. 1920년대에 캘리포니아 한인이 자영업에 종사한 정확한 통계는 확인할 수 없지만, 1930년대 초 로스앤젤리스에는 한인 프로듀서 33, 식료품상 9, 도매업 5, 세탁소 8, 트럭운송업 6, 식당 5, 직업소개소 1곳 등이 있었다.²⁷⁾ 그리고 식당,²⁸⁾ 후르트 스탠드,²⁹⁾ 이발소,³⁰⁾ 식료품가게,³¹⁾ 재단업, 세탁소,³²⁾ 소매상³³⁾ 등의 업종에 종사한 한인의 예가 많이

24) 캘리포니아의 5개 대도시에 거주하는 한인의 인구는 1910년 17.3%에서 1920년 21.1%로 약간 증가하였다. Yim, Sun Bin, *ibid.*, p. 520.

25)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ibid.*(1932), p. 81.

26) *Ibid.*, pp. 80, 1100.

27) 김신행, 앞의 책, 177~178쪽.

28) Korean-American Oral History Project Collection(1903~45). 윤용호와 윤도연 부부는 오클랜드에서 식당을 운영하였다. Choy, Bong-Youn, *ibid.*, p. 299. 양주은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레스토랑을 운영하였다.

29) Lee, Mary Paik, *Quiet Odyssey: A Pioneer Korean Woman in America*(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90), pp. 70~78 참조. 백현선은 남편과 과일가게를 운영하였다.

30) Sunoo, Sonia, Shinn(ed.), *ibid.*(2002), p. 47. 신현은 샌프란시스코의 차이나타운에서 이발소를 운영하였다.

31) Sunoo, Sonia Shinn(ed.), *ibid.*(1982), p. 63; 윤병욱, 『나라밖에서 나라찾았네: 미주한인독립운동사의 재인식』(박영사, 2006), 327쪽. 안창호가 1926년 미국을 떠나면서 장남인 안필립에게 가족의 생계를 위임하였고, 그는 야채운송업을 하다가 후르트 스탠드를 운영하였다(1927년).

32) Choy, Bong-Youn, *ibid.*, p. 302. 샌프란시스코의 황사는 목사는 재단업과 세탁소를 운영한 적이 있다.

33) *Ibid.*, p. 310 참조. 김헬렌 부부는 1927년 소매상을 한 적이 있다.

있다. 한인이 자영업자로 변모한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상승이동하려는 강한 욕구보다는 인종차별로 직업을 선택할 기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노동자에서 소작농으로 상승 이동하였지만 쌀농사에 실패하여 노동자의 신분으로 하향 이동될 위기에 처한 한인은 도시로 이주한 후에도 노동자 이외의 전문적인 직종을 선택하기가 어려웠다. 인종차별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다양한 기회를 가질 수 없었고, 교육적 배경도 낮고, 영어도 부족하여 직업 선택에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반면 1920년대에 이르러 도시로 이주하면서 한인가족은 생계를 유지할 차선책으로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했던 것이다.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가족구성원들의 협력이 필요했고, 이 과정을 통해 가족 간의 결집력이 강해졌다.³⁴⁾ 부인과 자녀들은 노동력을 제공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했고, 일과 가정생활이 상호 분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핵가족 중심의 생활 현상이 뚜렷해졌다.³⁵⁾

1920년대 이후 캘리포니아의 한인사회는 전체 공동체 차원에서도 가족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인공동체는 민족 집단이라기보다 하나의 대가족 같았고,³⁶⁾ 정치성보다는 거주지에서의 역사적 경험이나 고난을 공유하면서 상호의존하고 공동체를 유지하였다. 아직 코리아타운과 같은 밀집된 공동 거주지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대가족과 같은 결속력은 존재하였다. 특히 샌프란시스코의 한인공동체는 민족 집단이라기보다 하나의 대가족 같았다. 예를 들면 미국 출생자인 염도라가 자랄 때, 샌프란시스코에는 백 명 이하의 한인이 있었다.³⁷⁾ 이들은 백인 이웃과 매우 격리되어 있었지만 주일단위로 교회 서비스나 사회적 이벤트, 독립운동 이벤트를 통해 일체감을 유지할 수 있었다.

34) Chun, Jinny, "Ise and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Balancing between Social Reality and Social Goals," M.A. thesi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1987), p. 93.

35) Chin, Soo-Young(ed.), *Doing What Had To Be Done: The Life Narrative of Dora Yum Kim*(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99), p. 23.

36) *Ibid.*, p. 27.

37) 염도라는 1921년생이므로 1920년대를 의미한다고 여겨진다. 미국의 인구조사에 의하면 1930년 샌프란시스코의 한인은 143명이었다. 1910년 39명, 1920년 77명에 비하면 많이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ibid.*(1932), p. 81.

한인공동체가 지리적으로 집중되지 않았을지라도 내부적으로는 강한 응집력이 존재하였다. 한인가족들은 이웃 백인과 정서적으로 괴리되어 있었기에 한인 상호 간에 더욱 밀착할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한인임을 자각했고, 주위의 한인들을 다 알고 있었다.³⁸⁾ 한인은 영어를 잘 몰라서 서로 의지했고, 한인공동체가 허용하지 않는 곳에는 가려고 하지 않았다.³⁹⁾ 즉 대도시의 한인공동체는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 인종적 차별과 공격으로부터의 방어, 친목도모, 상호 의지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가족적인 분위기를 형성한 것이다. 사회적 고립감과 차별적인 상황에 대하여 민족적 유대감과 결속이 강화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인공동체의 대가족적인 성격은 자녀들에게도 통용되었다. 대가족처럼 지낸 한인 공동체의 아이들은 성장한 후에 서로 결혼하지 않았다. 남자 어린이와 여자 어린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이란 생각이 그들에게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다.⁴⁰⁾

요약하면 1920년의 캘리포니아의 이상기후, 그리고 1920년과 1923년의 외국인 토지법으로 인하여 한인들은 쌀농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1924년 이민법의 배척조항으로 사진신부가 중단되어 한인 1세 인구가 고정되고, 2세가 부각되어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면, 쌀농업의 붕괴는 한인들이 도시로 이주하여 자영업 중심으로 경제적 기반이 변화되어 핵가족을 중심으로 협력하는 변동요인을 제공하였다. 더욱이 1920년대 이후 한인 공동체의 대가족적인 민족적 결속과 유대감은 다른 동양인과의 차별감을 제공했고, 주류 사회에 적응하는데 갈등과 어려움을 가진 한인들이 내부적으로 결속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III. 인종차별과 세대관계의 변화

1924년 이민법의 제정과 캘리포니아 쌀농업은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한인에게 구조적·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한인들은 이러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핵가족을 형성하였고, 전통적인 가치관을 수정하면서 한인 나름대로의 특성을 형성하게 되

었다. 한인가족은 외형상으로는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었지만 실질적으로 독립적인 성격이 강했다. 그와 같은 특성을 이룬 주된 원인은 미주한인의 지위가 다른 동양인 이민집단과는 차별화되었기 때문이다. 미주 한인은 1905년 이후 일본의 신민으로 적용되어 중국인이나 일본인과는 입장이 달랐다. 일본인과 중국인 역시 이민이 배척되었고 동양인 차별정책이 적용되었지만 시민권에 부적격한 외국인 이면 미국출생자이건 최소한 삶의 터전을 선택할 여지가 있었다.

일본이나 중국 출신 이민자들은 자신의 조국으로 귀국할 것인가 미국에 정주할 것인가 선택이 가능했던 것이다. 1920년대 일련의 반일본인 관련법의 제정으로 1930년대에 많은 일본인이 본국으로 환국했고, 당시 캘리포니아의 일본인 인구는 1930년에 97,456명에서 1940년에는 93,717명으로 감소하였다.⁴¹⁾ 캘리포니아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줄어든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1930년대에 독신남성과 이세이(Issei) 가족들이 상당 수 일본으로 귀국했기 때문이다. 중국계 미국인 역시 자신의 미래를 중국으로 정할 것인가 미국으로 정할 것인가에 대한 열띤 논쟁을 벌였다.⁴²⁾ 동양인으로서 차별적인 상황에 대항하여 두 민족 모두 삶의 터전을 선택할 기회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나라 잃은 한인들은 돌아갈 모국이 없어 미국에서 정착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차별적 환경에 놓인 한인들은 독립적인 성격의 핵가족을 형성하였다. 전통 한인가족은 부계혈족 중심으로 결합되어 한 세대가 아닌 다세대로 이루어졌다. 시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계 혈족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갔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의 한인들은 독신자로 이민 와서 사진신부와 결혼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이 시기에 이르면 부모와 자녀만으로 구성된 핵가족을 이루었다. 더구나 고국을 방문할 수도 없고, 상호연락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살아가면서 시부모와 친척의 영향에서 벗어나 스스로 생존해야 했으므로 1965년 이후 신이민의 핵가족과도 다른 독립적인 양상을 띠는 것이다. 조부모·부모·자녀로 형성된 전통가족과는 달리 부모들이 가족의 최연장자로서 대소사를 결정했으며, 자녀들은 조부모까지 고

38) Chun, Jimmy, *ibid.*, p. 93.

39) Sunoo, Sonia Shinn(ed.), *ibid.*(2002), pp. 301-302.

40) *Ibid.*, pp. 184-186.

41) Daniels, Roger, *ibid.*(1988), p. 115.

42) Chun, Gloria H, "Go West...to China: Chinese American Identity in the 1930s," Wong, K Scott and Sucheng Chan(eds.), *Claiming America: Constructing Chinese American Identities during the Exclusion Era*(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98), pp. 170-174.

려할 필요없이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였다. 그러므로 캘리포니아의 한인들은 독립적인 핵가족으로 단합되어 부부와 부모·자녀 간에 협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결합체의 성격이 강하였다. 이와 같은 캘리포니아의 한인가족은 거주지의 정치·경제적 요인들이 결합된 결과로 나타났으며, 한인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적응하면서 한인가족의 특성이 발휘된 것이다. 캘리포니아의 한인들은 사회·경제적 기회와 조건에 따라 구조적으로 핵가족을 중심으로 생존할 여건이 형성되었지만 여기에는 거주지에 적응하려는 한인의 능동적인 의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미국의 가치관을 흡수하여 동화될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한국적 가치관을 그대로 적용만 하며 살아간 것도 아니었다. 거주기간이 연장되면서 가치관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

10대에 조국을 떠난 대부분의 한인 1세대들은 1920년 이후가 되면 미국에서의 거주기간이 더 많아졌다.⁴³⁾ 1920년 이후에 접어들면 비록 이들이 미국에서 전적으로 교육받은 것은 아니었다 해도, 미국식 생활방식에 익숙해졌다. 미국 사회에 적극적으로 동화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충족되지는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상이한 적응과 갈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캘리포니아 한인들의 전통적 관습과 가치관도 변화되었다. 물론 새로이 변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한국적 가치관의 변화를 도모하기도 하였다.

한인가족의 구성원들이 거주지에 적응하는 데에는 차이가 있었고, 남편, 아내, 자녀 모두 갈등과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과 긴장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인가족은 돈독한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유지하였다. 사회·경제적으로 제한이 많았고, 법적인 지위가 정해져 있었지만 나름대로 캘리포니아에서 적응하기 위해 차별적인 조건 속에서도 한인 사회의 특성을 형성한 데에는 인종차별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기 때문이다.

사친신부가 도래하기 시작한 1910년대에는 2세가 없는 가정도 많았고, 비록 자녀가 있어도 나이가 어려서 1920년 이후 한인가족과 같이 부모·자녀간의 관계가 성립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1920년 이후 캘리포니아의 한인이 가족을 중심으로 결합한 데에는 부모인 1세와 자녀인 2세가 동양인으로서 경험한 인종차별이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물론 1세와 2세가 경험한 인종차별의 성격과 강도가 동일하지는 않았으리라 짐작되지만 인종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차별받는다라는 사실은 모든 한인들에게 공감대를 형성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1905년 무렵 캘리포니아로 이주한 한인 1세는 중국인과 일본인으로 오인되어 다양한 인종차별을 경험하였다. 이는 크게 공공장소에서의 불평등, 폭력 행위, 그리고 주거지 분리로 인한 불평등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한인은 일차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였다. 한인은 이발소나 음식점에서 서비스를 거부당하였다. 극장에서 한인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은 분리되었고, 유흥장소에 입장하는 것도 금지되었다.⁴⁴⁾ 1900년대 중반에 이르러 1세대들은 초기보다 인종차별이 완화되었다고 느꼈지만,⁴⁵⁾ 여전히 인종차별의 대상으로서 사회·경제적 기회가 제한되었다.

법적으로 미국시민인 한인 2세 역시 동양인이었기에 인종차별에서 제외되지 않았다. 한인 2세인 SL(약자로 표기됨)은 “1936년 나는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학생이었다. 어느 날 백인학생 집에서 열린 파티에 초대받았다. 그런데 파티는 시작되지 않았다. 이유는 내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으로 내가 그들과 다르게 생겼다는 것을 깨달았다.”⁴⁶⁾ 한인 2세 염도라는 “나는 인종차별과 더불어 살았다. 인종차별은 내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쳤다. 당신은 인종차별과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배워가는 것이다. 당신이 그것과 더불어 성장할 때, 인종차별은 그저 삶의 부분이다. 나도 성장하면서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였다”⁴⁷⁾고 언급하여 당시의 인종차별에 대한 수용적 태도를 보여 주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한인 2세는 매우 제한된 사회·경제적 기회에 놓여 있었으므로,⁴⁸⁾ 캘리포니아의 주류사회에 사회·문화·경제적으로 동화하기에는 장벽이 있었다. 2세가 동양인으로서 직면한 사회·경제적 차별은 학교에서 배운 평등의 이념과는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따라서 한인 2세는 반동양인법과 인종적으로 불평등한 사회적 환경에 대응하여 한인 공동체로 서서히 집결될 수밖에 없었다.⁴⁹⁾

44) Mary Paik Lee, *ibid.*, p. 139.

45) Sunoo, Sonia Shinn(ed.), *ibid.*(2002), p. 70.

46) Chun, Jimmy, *ibid.*, p. 64에서 인용.

47) Chin, Soo-Young(ed.), *ibid.*, p. 17에서 인용.

48) Chun, Jimmy, *ibid.*, p. 5.

49) Chin, Soo-Young(ed.), *ibid.*, p. 20.

43) Sunoo, Sonia Shinn(ed.), *ibid.*(1982), p. 174.

법적인 지위는 달랐지만 인종 때문에 다양한 사회·경제적 차별을 경험해야 했던 한인 1세와 2세의 세대관계는 직선적 동화 이론에 근거한 유럽인 이민가정의 부모자녀 관계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⁵⁰⁾ 주류사회에 동화를 전제로 한 유럽 이민가정과 한인가정에서의 부모자녀 관계가 상이한 이유는 무엇보다도 동양인으로서 직면한 다양한 차별로 인하여 미국문화와 사회에 대한 동화가 불가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한인의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2세의 인구분포도와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1930년 5세 이상으로 학교에 출석한 아동의 수는 총 546명이었으며, 7~13세가 291명, 14~15세가 53명, 16~17세가 36명, 18~20세가 59명⁵¹⁾으로서 주로 10대 초반을 전후한 나이가 많았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2세가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웠다고 볼 수도 있다. 한인 2세는 1세와 법적인 지위가 달랐지만 이에 상관없이 동양인으로서 사회적인 차별을 감수해야만 하였다. 그러므로 한인 2세가 부모로부터 독립할 나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백인이 운영하거나 소유한 회사에 취업하는데 커다란 장벽을 느꼈다. 한인 공동체는 규모가 작아 한인으로 종속된 경제 체제를 지탱할 수 없었고, 공동체 안에서 가능한 직업은 노동직이었다.⁵²⁾ 결국 이들은 주로 노동자가 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했던 한인 2세 EP(약자로 표기됨)는 “경제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내 삶의 추진력이었다. 아버지보다 더 잘 살아야 된다는 강한 열망이 있었다”⁵³⁾고 언급하였다.

한인부모들은 자녀마저 인종차별을 당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상승 이동하는 데

50) 1945년 로이드 워너(W. Lyod Warner)와 레오 스롤(Leo Srole)은 직선적 동화이론에 의거하여 양키 시티(Yankee City)의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는 1930년대 초기 매사추세츠 뉴베리포트(Newberryport)의 한 소규모 산업도시의 사회적 체계에 대한 여섯 권의 연구인데 저자들은 이를 양키 시티라 명명하였다. 저자들은 이 연구에서 자녀들이 거주지 사회의 가치와 변화들을 흡수하여 전통적인 부모·자녀 관계가 전도되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에게 거주지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미국문화와 미국인의 정체성을 내면화하고 부모의 문화와 정체성을 이방인의 것으로 거부한다는 견해가 이 논의의 핵심을 이룬다. Waters, Mary C., *Black Identities: West Indian Immigrant Dreams and American Realitie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pp. 193~194 참조.

51)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ibid.*(1932), p. 1100.

52) Chun, Jimmy, *ibid.*, p. 94.

53) *Ibid.*, pp. 79~80에서 인용.

제한을 당하자 자녀의 미래를 위해 교육을 중요시하며 대응하였다. GK(약자로 표기됨)에 의하면 부모는 자녀에게 교육을 강조하였고,⁵⁴⁾ 부모의 높은 교육열은 학교출석률에 잘 반영되었다. 1930년 인구센서스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전 인종의 평균 학교출석률은 69.9%였다. 백인의 출석률은 71.5%였고, 중국인은 75.6%였다. 일본인이 84%로 가장 높았고, 한인은 82.9%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⁵⁵⁾ 이러한 높은 교육열은 한인이 캘리포니아의 열악한 환경에서 향상된 미래를 지향하려는 능동적인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5~20세 한인 남자아이의 84.7%, 여자아이는 81.2%가 학교에 출석함으로써⁵⁶⁾ 거의 동등한 비율을 보여주었다.

1924년 이민법이 제정되고 쌀농업이 붕괴되면서 구조적·경제적으로 영향을 받은 캘리포니아의 한인들은 세대관계를 중심으로 핵가족을 형성하였다. 한인 2세가 한인 공동체로 집결되고 가족의 역할이 더욱 필요할 때 부모의 영향은 더 강해지면서 부모와 자녀는 상호간에 지원하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을 것이다. 한인부모들은 차별받는 자녀를 위하여 교육을 강조하였고, 이들의 교육열은 한인 아동의 높은 학교 출석률로 잘 반영되었다.

IV. 양성평등과 여성의 지위향상

한인부모는 가부장적 가치관과 권위를 강조하기보다는 자녀의 미래를 위하여 노력하는 과정에서 전통적 가치관의 변화를 도모하였다. 어려운 경제상황에도 불구하고 자녀교육을 위하여 희생하고 지원하는 것은 한국적 가치관이었지만 실용적인 목적을 위하여 엔지니어와 교육의 특정분야를 강조했으며, 교육을 지원함에 있어 이들 선호의식이 약화된 것은 새로운 변화의 양상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한인 2세의 학교출석률에서 잘 나타난 것처럼 1세는 교육을 강조하면서 딸과 아들을 평등하게 배려하려고 노력하였다. 한인 1세는 시민권 부적격자 및 인종적 요건으로 제한되어 법적·사회적·경제적 불이익과 차별에 부딪히자 2세가 사회

54) *Ibid.*, p. 81.

55)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ibid.*(1932), p. 1094.

56) *Ibid.*

경제적으로 성공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했고, 그 과정에서 아들과 딸을 동등하게 배려하였던 것이다. 1905년 샌프란시스코에 이민 와서 세탁업에 종사한 하상옥 부부(57)는 불경기 동안 사업이 매우 침체되어 주머니에 페니 하나 없었던 적도 있었다. 그들은 빵 하나 살 여유가 없어 신선하지 않은 빵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식생활을 해결하곤 하였다. 하지만 그러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딸 소정을 보스턴 줄리아드 음악학교에 보내 교육시켰다. 이들 부부는 이 시기가 경제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이 학교에 다니는 것을 보는 것이 매우 행복한 시기였다고 회상하고 있다.⁵⁸⁾

선우 소니아의 아버지는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자식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자녀들에게 악기를 가르치기로 결정했을 때, 아들들에게는 각각 섹스폰과 클라리넷을 가르쳤고, 딸인 소니아에게도 바이올린을 배우도록 하였다. 당시에 악기를 가르치는 것은 비싼 비용이 들었지만 이탈리아인 강사 루치아노를 고용하여 매주 30분씩 레슨을 시켰다. 여기에서 지적될 것은 어머니만이 딸의 입장을 고려하여 전적으로 동등한 교육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역시 딸을 동등하게 교육시키려고 배려하였다는 점이다. 즉 아들을 선호하여 아들의 교육에 우선적으로 치중하지 않고, 부부가 딸에 대한 기대치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균등한 기회를 주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그러나 구세계에서 전통사회를 경험했던 한인부모들은 아직도 유교적 가치관을 실천함으로써 양성평등의 가치관으로 변화하는 데에 한계점을 보여 주었다. 아들과 딸을 교육적으로는 동등하게 배려하려고 노력했지만 아직도 유교적 가치관을 기준으로 자녀를 대했다. 2001년 안나 김과 소니아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아버지는 딸에게 한글을 가르쳤고, 잔악한 일본에 의해 조국이 식민지화된 상황을 알렸지만 여성으로서 요조숙녀가 되도록 가르쳤다.⁵⁹⁾

한편 한인 남성과 여성은 새로운 환경에서 상이한 적응과정을 경험했는데, 남성 보다는 여성의 역할과 지위가 더 많이 변화되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캘리포니아

에서 형성된 한인 핵가족이 한인의 전통적 대가족과는 구조적으로 상이했기 때문이다. 전통가족에서 한인여성은 부계가족에 종속되어 시부모와 남편의 강한 통제를 받았다. 그들의 역할은 출산, 자녀양육, 가사노동 등에 국한되었고, 가정의 대소사에 의사결정권을 행사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반면 미국에서는 독립된 핵가족에서 남편과 자녀와 돈독히 결합되어 살아갈 수 있었다. 여성들은 며느리로서의 의무와 시부모의 통제가 없어짐으로서 종속적인 위치에서 상당히 벗어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족의 생계를 위해 남편의 자영업에 돕거나, 또는 취업하여 임금을 벌 수도 있었으므로 가정의 경제에 공헌하는 역할도 행하게 되었다. 한인여성은 이러한 새로운 역할을 수행하느라 이중적인 노동으로 매우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여성에게 경제적 역할이 부가된다는 것은 가정 내에서 여성의 역할과 권한이 증대된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한인여성의 전통적인 역할에서 중요한 영역인 며느리로서 순종해야 할 부분이 감해지고, 대신 가정의 생계를 위하여 경제적인 역할을 행하여 가정에 공헌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여성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지위가 향상된 것이다.

따라서 자녀를 교육하면서 양성평등의 가치관을 실천한 한인은 부부관계에서도 변화를 도모하였다. 한인여성들은 가족의 생존을 위하여 경제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러한 활동이 부업이건 자영업의 파트너로서의 역할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가족을 위해 경제적으로 기여한다고 해서 성역할에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가족 내부적으로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였다. 이민 초기부터 1910년대에도 여성이 가장의 일을 도와 파트너로서 경제적으로 공헌한 적은 있었지만 1920년 이후 여성의 역할에 변화가 있었다. 가족에게 더 나은 생활을 제공하기 원했고, 자녀의 교육을 위해 희생하면서도 자신들의 소망을 이루어 나갔다.⁶⁰⁾

1914년 사진신부로 도래한 신강에는 가사 이외의 임금노동을 하기 위해 남편을 설득하였다. 남편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부업을 갖기로 결심하고, 재봉공장에 취업하였다. 비상시를 대비해서 자금을 마련하기로 결심하고, 가사를 위해 비정규적인 작업시간을 최대한 이용하였다.⁶¹⁾ 오랫동안 재봉기계 앞에 앉아서 일하느라 자신을 위해 사용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 연약한 체력을 가진 그녀는

57) 부인은 1914년 캘리포니아에 사진신부로 도래하였다.

58) Sunoo, Sonia Shinn(ed.), *ibid.*(1982), p. 178.

59) "Interview With Sonia Sunoo," Charr, Evelyn Kim Papers, Korean-American Collec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os Angeles.

60) Sunoo, Sonia Shinn(ed.), *ibid.*(2002), pp. 18~19.

61) *Ibid.*, pp. 28~29.

점차 기계 생산의 노예가 되었다. 신강에는 6년 동안 재봉사로 일한 후 결국 일류 재봉사가 되었다. 여성이 가정에 경제적으로 공헌한다고 해서 가정 내 성역할이 전도된 것은 아니었지만 신강에는 가장인 남편의 의지와 결정에만 전적으로 복종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가족에 경제적으로 기여할 수 있었다.

한인가족에서 부부관계와 여성의 역할 등이 변화하면서 남편들은 가부장으로서 전적인 권한에 도전을 받았다. 부부 관계에서 아내는 남편의 권한을 전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선별적으로 받아들였다. 1916년 사진신부로 도미한 윤도연은 오를랜드에서 남편 윤용호와 식당을 열었다. 아이 다섯 중 셋은 학교에 다녔고, 둘은 어렸다. 집에서 식당은 여섯 블럭 떨어져 있었고, 윤도연은 새벽 4시 반에 식당에 나와 밤 11시에 문을 닫을 때까지 고되게 일하였다.⁶²⁾ 냉장고 없이 음식을 미리 준비하느라 매우 힘들었다. 그녀는 가족식당을 운영하면서 자녀와 고객 간의 문제로 남편과 갈등을 겪었다. 자녀들은 하교시간이 각각 달랐고, 그녀는 손님이 있어도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 배가 고프는 아이들에게 먼저 음식을 제공하였다. 남편은 부인이 손님을 기다리게 한 채, 자녀들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불평하였다. 윤도연은 “난 손님이 아니라 아이들을 먼저 생각한다. 그들을 먼저 먹여야 한다. 만약 아이들의 건강이 희생된다면 어떤 행복을 가질 것인가? 그러니까 손님들 앞에서 내게 소리지르지 말라”⁶³⁾고 남편에게 대응하였다. 남편과 가치관이 대립할 때 남편의 의견만을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도 표현하고 실천하여 전통적인 한국적 부부관계에 나타난 가치관과는 달리 양성평등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920년대 반일본 관련법은 한인사회에 구조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한인들이 부모·자녀로 이루어진 핵가족으로 결합하여 다양한 특성을 발휘하게 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요컨대, 1920년부터 제2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기 이전까지의 시기는 캘리포니아의 한인이 새로운 여건에 직면하여 가족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특성을 형성한 시기였다. 한인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제한된 기회구조에 놓였고, 법적인 신분 또한 정해져 있었지만 차별화된 조건 속에서도 핵가족을 중심으로 가치관이 수정되고 있었다.

62) Sunoo, Sonia Shinn(ed.), *ibid.*(1982), pp. 61-62.

63) *Ibid.*, p. 63에서 인용.

당시 부모·자녀의 관계에서는 갈등보다는 상호협력이 두드러졌다. 자녀들은 미국식 가치관에 노출되어 부모와는 다른 가치관을 수용하며 언어와 문화적 갈등을 겪기보다는 한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단결하였다. 부모들은 자녀가 사회적으로 주류사회에 진입하여 성공하고 인정받기를 소망하여, 그 목표를 위한 방편으로 교육을 강조하였다. 또한 가부장적 제도의 하나인 아들 선호의식도 많이 약화되고 있었다. 가정에서 여성의 경제적 역할이 부가되면서 부부관계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었는데 이는 양성평등의 가치관으로 발전되었다.

V. 결론

1920년대 이후 캘리포니아의 한인이 핵가족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1920년대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의 반일본 관련법의 제정이 중요한 요인을 제공하였다. 전후 단합된 캘리포니아인의 반일운동은 1921년 캘리포니아 의회가 일본인 전체의 배척을 결의한 개별 주 단계에서 1924년 이민법을 제정해 새로운 배척조항을 추가하는 연방정부의 배척단계로 발전하였다. 이미 1905년 대한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이 중단되었고, 하와이에서 대륙으로의 이민 또한 1907년 <대통령령 589>로 이미 중단되었기 때문에 1924년 이민법은 한인 이민의 중단이라는 측면보다는 다른 면에서 더욱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도 이 법에 따라 한인 사진신부의 유입이 중단되었고, 한인 공동체에서 1세 인구가 고정되어 한인 2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1910년대에 호황을 누리면서 노동자에서 소작농으로 상승했던 캘리포니아의 한인은 1920년 쌀농업 붕괴를 필두로 1920년과 1923년에 제정된 일련의 외국인토지법의 영향을 받아 소작농에서 자영업자로 변모하였다. 1920년을 기점으로 캘리포니아의 쌀농업이 붕괴되면서 한인농민은 농업지역을 이탈해 도시로 이주하면서 농업에서 가족 자영업으로 전환하였고 가족을 중심으로 협력하게 되었다.

1920년대에 캘리포니아의 한인들이 독립적인 핵가족을 구성하게 된 데에는 당시 한인의 법적 지위와도 연관이 있다. 캘리포니아의 한인은 조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한 나머지 조국을 방문하기도 영구 귀국하기도 어려운 딜레마에 처해 있

었다. 1965년 이후 미국으로 이주한 신이민자처럼 조국을 방문하여 유대감을 유지하기도 어려웠기 때문에 당시 한인에게는 미국에서의 적응과 생존이 매우 절실하고 당면한 문제로 부각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어느 한 곳에만 귀속되기 어려웠던 캘리포니아의 한인들은 정치적으로는 1924년 이민법으로 인해 법적인 지위와 공동체의 성격이 변화되었고, 경제적으로는 1920년 캘리포니아 쌀농업이 붕괴된 후 도시로 이주해 경제적 기반이 급변하는 전환기를 맞이한 것이다.

1910년 이후 사진신부가 도래하여 상당 수 한인들이 새롭게 가정을 이루었다. 1920년대 이후에는 2세가 증가하여 부부만이 아닌 부모·자녀관계를 포함한 한인 가족이 형성되었다. 캘리포니아의 한인들은 전체 공동체 차원에서는 대가족적인 성격을 보여 주었고,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 구성원 간에는 상호지지의 특성이 나타나면서, 동시대 유럽계 이민집단과는 차별화된 세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나타난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한인 1세와 2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던 인종차별이 있었다. 차별받는 한인들에게 미국에서의 적응과 생존은 매우 긴박한 사항이었으며, 2세, 교육, 인종차별, 경제, 양성평등 등의 폭넓은 가족문제가 일상생활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던 것이다.

조국에 거주하는 부모와 친족으로부터 고립되어 거주지에서 자립적으로 적응해야 했던 캘리포니아의 한인들은 전통가치관인 가족을 중시하였지만, 생존에 대한 치열한 의식과 경제적으로 상승하려는 욕구가 결합되어 전통적 가치관이 수정되기도 하였다. 아직도 인종차별로 인하여 주류 사회에 동화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미국에서의 생활은 변화를 필요로 하였다. 한국적 전통 가치관—부모와 자녀 간의 상하관계, 가부장인 남성에게 부여된 권한, 성역할 분리, 교육을 강조하여 성 공하려는 의지—이 기본적으로 유지되었지만 이주지역의 변화하는 경제적·법적 여건에 따라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가치관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교육에 대한 동등한 배려, 아들선호의식 약화, 양성평등의 특성, 그리고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는 측면으로 반영되었다. 정치·경제적인 변화와 생존에 대한 한인의 능동적인 의지가 결합하여 이러한 특성이 나타난 것이다.

참고문헌

- 김신행, 『새하늘과 새땅을 향하여: L.A.연합감리교회의 100년역사 1904~2004』. Los Angeles: LA 연합감리교회, 2004.
- 민병용, 『美洲移民 100年: 初期人脈을 쫓다』. 서울: 한국일보사 출판국, 1986.
- 손영호, 「미국이민정책에 관한 연구, 1882~1924」. 『미국사연구』 4집, 1996, 165~202쪽.
- 윤병욱, 『나라밖에서 나라찾았네: 미주한인독립운동사의 재인식』. 서울: 박영사, 2006.
- 최협, 「미국의 이민정책과 아시아계 미국인」. 『현대사회과학연구』 8권, 1997, 1~30쪽.
- Almaguer, Tomas, *Racial Fault Lines: The Historical Origins of White Supremacy in Californi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4.
- Azuma, Eiichiro, *Between Two Empires: Race, History, and Transnationalism in Japanese Americ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Chin, Soo-Young(ed.), *Doing What Had To Be Done: The Life Narrative of Dora Yum Kim*.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99.
- Choy, Bon-youn, *Koreans in America*. Chicago: Nelson-Hall, 1979.
- Chun, Jimmy, "Ise and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Balancing Between Social Reality and Social Goals." M.A. thesis,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1987.
- Daniels, Roger, *Asian America: Chinese and Japanese in the United States Since 1850*.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88.
- Daniels, Roger, *The Politics of Prejudice: The Anti-Japanese Movement in California and the Struggle for Japanese Exclus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
- Daniels, Roger and H. L. Kitano, *American Racism: Exploration of the Nature of Prejudice*. Ea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1970.
- Ichihashi, Yamato, *Japanese in the United States: A Critical Study of the Problems of the Japanese Immigrants and Their Children*. Stanford Universit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32.
- Kim, Won-Yong, *Chaemi Hanin Osipnyun-sa(Fifty-Year History of Koreans in America)*. Reedley, California, 1959.
- Korean-American Collecti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Los Angeles.
- Evelyn Kim Charr Papers.
- Lee, Mary Paik, *Quiet Odyssey: A Pioneer Korean Woman in America*. Seattle: University of

- Washington Press, 1990.
- Patterson, Wayne, *The Korean Frontier in America: Immigration to Hawaii, 1896-1910*.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8.
- Special Collec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 John Randolph Haynes Papers.
- Katherine Philips Edson Papers.
- Korean-American Oral History Project Collection(1903-45)
- State Board of Control of California, *California and the Oriental: Japanese, Chinese, and Hindus*. Sacramento: California State Printing Office, 1920.
- Statutes of California*. Sacramento: California State Printing Office, 1921; 1923.
- Sunoo, Sonia Shinn(ed.), *Korea Kaleidoscope: Oral Histories*, Vol. 1 *Early Korean Pioneers in USA 1903~1905*. Davis, Calif.: Korean Oral History Project, 1982.
- Sunoo, Sonia Shinn(ed.), *Korean Picture Brides: A Collection of Oral Histories*. Davis, Calif.: Korean Oral History Project, 2002.
- Takaki, Ronald(ed.), *Strangers From a Different Shore: A History of Asian Americans*. New York: Penguin Books, 1989.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Fifteenth Census of the United States 1930, Agriculture* Vol. II.,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30.
- U.S. Department of Commerce, Bureau of the Census. *Fifteenth Census of the United States 1930, Population 2. General Report Statistics by Subject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32.
- U.S. Statutes at Large*. Vol. 43.
- Waters, Mary C, *Black Identities: West Indian Immigrant Dreams and American Realitie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2001.
- Wong, K. Scott and Sucheng Chan(eds.), *Claiming America: Constructing Chinese American Identities during the Exclusion Era*. Philadelphia: Temple University Press, 1998.
- Yim, Sun Bin, "The Social Structure of Korean Communities in California, 1903~1920." Lucie Cheng and Edna Bonacich(eds.), *Labor Immigration Under Capitalism: Asian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Before World War II*.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 Young Ho, Son, "From Plantation Laborers to Ardent Nationalists: Koreans' Experiences in America and Their Search for Ethnic Identity, 1903-24." Ph.D. diss., Louisiana University, 1989.

국문 요약

이 연구는 반일운동이 극렬하게 전개되었던 192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한 인사회가 반일본 관련법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았으며, 나아가 이러한 법적인 변화에 적응해 한인사회에 나타난 특성이 무엇인지 가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1924년의 이민법 제정과 캘리포니아의 쌀농업 붕괴로 인하여 한인공동체가 정치·경제적인 변화를 경험하면서 전통적 가치관을 어떻게 유지하고 변형했는지 세대관계와 양성평등의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1920년대 이후 캘리포니아의 한인들이 핵가족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된 배경에는 1920년대의 반일본 관련법의 제정이 중요한 요인을 제공하였다. 이 법에 따라 한인 사진신부의 유입이 중단되었고, 한인 공동체에서 1세 인구가 고정되어 한인 2세의 비중이 점차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1910년대에 호황을 누리면서 노동자에서 소작농으로 상승했던 캘리포니아 한인은 1920년 쌀농업 붕괴를 필두로 1920년과 1923년에 제정된 일련의 외국인토지법의 영향을 받아 도시로 이주하였다. 이러한 변화과정에서 농업에서 가족 자영업으로 전환하였고,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을 중심으로 협력하게 되었다.

시민권에 부적절한 외국인이며 일본의 신민이 되어 조국에 거주하는 부모와 친족으로부터 고립되어 거주지에서 자립적으로 적응해야 했던 한인은 전통 가치관인 가족을 중시하였다. 그러나 생존에 대한 치열한 의식과 경제적으로 상승하려는 욕구가 결합되어 전통적인 가치관이 수정되기도 하였다. 한국적 전통 가치관—부모와 자녀 간의 상하관계, 가부장인 남성에 부여된 권한, 성역할 분리, 교육을 강조하여 성공하려는 의지—이 기본적으로 유지되었지만, 이주지역의 변화하는 경제적·법적 여건에 따라 적응하기 시작하면서 가치관이 변화되기도 하였다. 이는 교육에 대한 동등한 배려, 아들선호의식 약화, 양성평등의 특성, 그리고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는 측면으로 반영되었던 것이다.

- 투고일 : 2008. 7. 1. ● 수정일 : 2008. 10. 20 ● 게재확정일 : 2008. 11. 28.
- 주제어(keyword) : 캘리포니아의 한인(Koreans in California), 한인가족(Korean family), 반일본 관련법(Anti-Japanese law), 인종차별(Racial prejudice), 세대(Generation).